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오만

Sultanate of Oman

2018년10월17일 | 책임조사역(G3) 김희원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10천 km ² 	인구 4.261백만명 (2018기준) 	정치체제 절대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GDP 816.82억 달러 	1인당GDP 19,144.95 달러 	통화단위 Omani Rial 	환율(U\$기준) 0.39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북동쪽으로 오만 만, 동쪽과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접경하고 있음.

□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자원수출로 얻은 수익을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여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세습군주인 Qaboos bin Said 왕은 1970년 즉위 후 '20세기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현대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왕위 승계와 관련된 불안정성이 존재함.

□ 수니파 또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는 타 이슬람 국가와 다르게 국민의 대다수가 이바디파(Ibadism)*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슬람교 내의 소수 종파들 중 하나로 온건한 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만과 잔지바르, 리비아, 동아프리카, 튀니지의 제르바 섬 및 알제리의 음자브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3. 28 수교 (북한과는 1992. 5. 25)

주요협정 항공업무협정('87), 문화협정('95),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04),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06), 외교관사증면제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939,410	615,572	641,218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광산기계
수 입	2,888,281	2,367,845	2,333,294	천연가스, 원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18.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56건, 779,733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제성장률	1.4	4.7	5.0	-0.9	1.9
소비자물가상승률	1.0	0.1	1.1	1.6	1.5
재정수지/GDP	-1.1	-16.0	-21.2	-12.9	-2

자료: IMF, EU

국제유가 상승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로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전망

- 2017년 오만 경제는 저유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 및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오만은 2017년 기준 석유 부문이 GDP의 30.1%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2018년 3월 첫 단계 시추작업이 시작된 카잔(Khazzan) 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0%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9년 VAT 시행 등으로 물가상승 전망

- 2016년,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오만 정부의 식료품 가격 상승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세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각각 1.1%, 1.7%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1.5%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2019년에는 부가가치세(VAT)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저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들은 VAT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만이 시행 중이며, 오만은 부가가치세 도입을 2019년까지 연기한 바 있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2019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 전망

- 오만은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2017년 기준 정부 수입의 약 71%를 차지하는 재정구조로, 2012년 대규모 시위 이후 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 민심수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힘입어 2013년까지 흑자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원유수출 재정수입 감소로 201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의 적자로 전환된 후 2016년에는 GDP의 -21.2%까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국제유가 회복 및 연료 보조금 삭감, 공공 부문 채용 억제, 법인세법 개정 등에 따라 -12.9%로 축소되었음. 재정수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추세에 따라 2018년에는 적자규모가 GDP의 -2.1%로 대폭 개선되고, 2019년에는 GDP의 0.8%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예산은 전년(배럴당 45달러)보다 높은 배럴당 50달러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오만 정부는 계획보다 많은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 상 수 지	4,212	-10,957	-12,320	-10,762	-2,705
경상수지/GDP	5.2	-15.9	-18.7	-15.2	-3.3
상 품 수 지	25,677	9,118	6,257	8,762	17,577
상 품 수 출	53,566	35,683	27,545	32,884	43,002
상 품 수 입	27,888	26,564	21,287	24,122	25,425
외 환 보 유 액	16,324	17,543	20,262	16,088	18,112
총 외 채	28,018	36,035	45,624	59,998	65,926
총외채잔액/GDP	34.6	52.4	69.3	84.9	80.8
D.S.R.	3.8	3.3	13.3	18.9	15.8

자료: IMF, EIU

국제유가 상승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전망

- 민간 부문의 인력을 대부분 외국인에게 의존함에 따른 본국 송금* 과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추세로 인해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15.2%를 기록하였음.

* 경상이전수지(억 달러) : -103.0('14) → -109.9('15) → -103.1('16) → -98.2('17) → -102.3('18e)

-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추세 및 카잔(Khazzan) 가스전 가동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3.3%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2019년에는 -1% 미만 수준으로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안정적 수준 유지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2015년 175억 달러에서 2016년 20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 충당 등으로 인해 2017년에는 161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오만 정부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2016년 6월 2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함.

- 2018년에는 외환보유액이 181억 달러로 늘어나 월평균수입액 대비 5개월분 이상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아울러 GDP의 약 24%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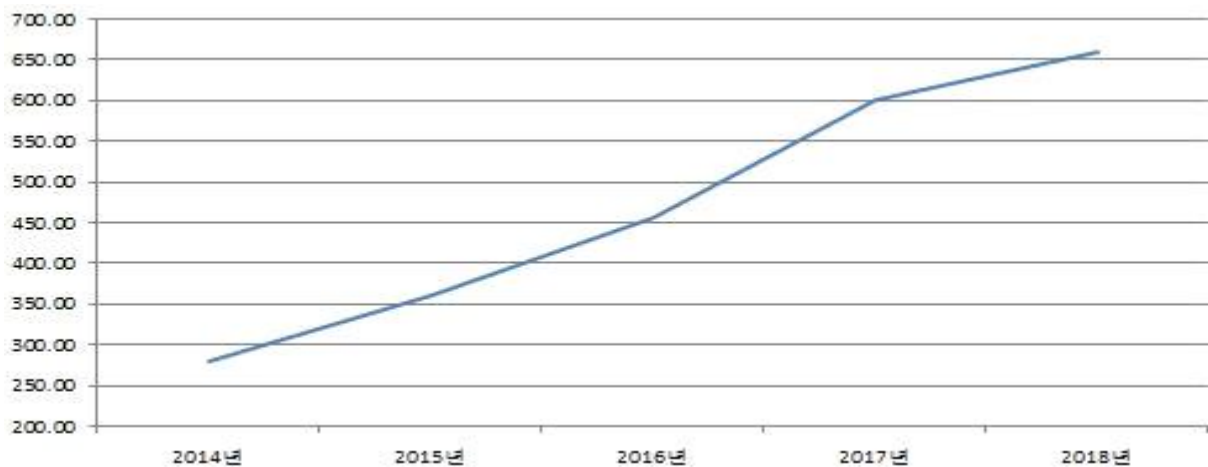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등으로 총외채잔액 및 D.S.R 증가 추세

- 저유가에 따른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 및 산업다각화를 위한 주요 국책 프로젝트 발주로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4년 34.6%에서 2017년 84.9%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8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저유가 영향으로 고유가 당시 계획된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가 연기된 바 있으나, 주요 국책 프로젝트 발주는 지속될 전망이다.

< 오만의 총외채잔액 추이 >

(단위: 억 달러)



* 자료: OECD

- D.S.R 또한 매년 상환해야 하는 외채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면서 2015년 3.3%에서 2017년 18.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5.8%를 기록할 전망이다.

구조적취약성

산업다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 지속

- 정부의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천연가스 부문이 GDP의 약 30%, 재정수입의 약 71%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오만은 저유가 추세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재정·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 중임.

성장잠재력

원유 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수입원으로서의 천연가스 자원 개발

-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인 309,500km²의 영토에 2017년 확인매장량 기준 54억 배럴의 원유(전 세계의 0.3%, 세계 22위)와 23.5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세계 점유율 0.3%, 세계 27위)를 보유하고 있음.
- 원유 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수입원으로서의 천연가스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2017년 6월 BP가 카잔 지역의 61광구 가스 채굴 추진을 시작한 이후 2018년 3월 첫 1단계 시추작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일 약 10억 입방피트 규모의 천연가스를 생산 중임.
- * 지난 10년간 연 평균 원유 생산량 3.25억 배럴을 가정하였을 때 향후 17년 이내 고갈될 전망이다.
- BP는 카잔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량을 약 100조 입방피트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카잔 지역 가스전 발견 이전 오만의 가스 매장량인 23.5조 입방피트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임.

< 카잔 가스전 위치 >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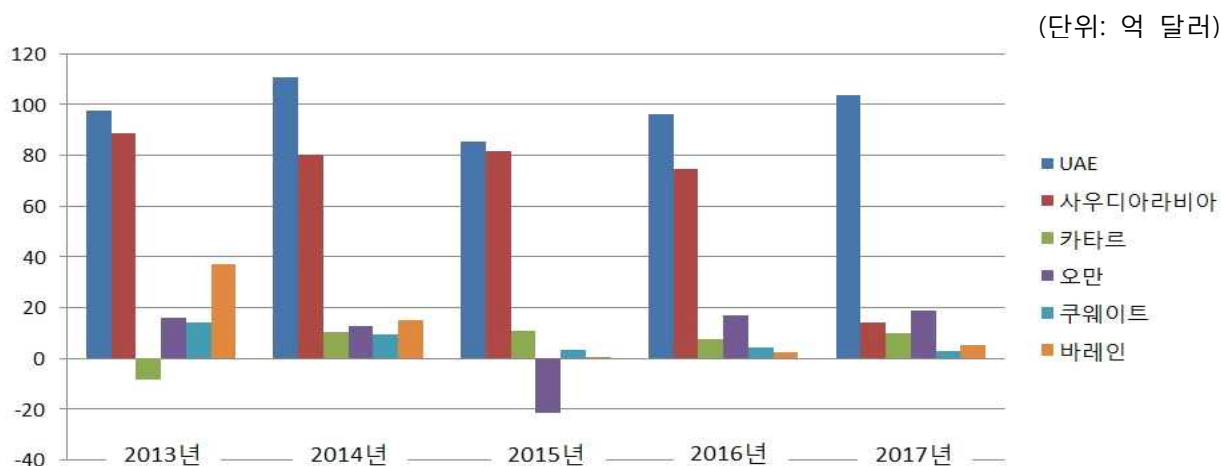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 보유

- 오만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역인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 인도,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 중에서도 지정학적 이점이 큰 국가임.
- 오만 정부는 2015년 4월 개최된 'GCC 공급망 및 물류 컨퍼런스'에서 'SOLS'(Sultanate of Oman Logistics Strategy 2040)을 발표하였으며, GDP 대비 물류 산업 비중을 2014년 3%에서 2040년까지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오만은 종합물류단지 및 배후산업단지 조성, 물류 및 투자 제도 개선, 항공 및 항공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하여 물류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르(Sohar) 항에 무역 기능을 집중시켜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서 성장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산업다각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적극 실시

- 오만은 과도한 석유 부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기술 습득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해결코자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적, 제도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8에 의하면 오만의 사업환경 순위는 71위로 GCC 내 다른 국가인 UAE(21위), 바레인(66위) 보다는 낮지만, 카타르(83위), 사우디아라비아(92위), 쿠웨이트(96위) 보다는 높은 편임.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8에 의하면, 2017년 오만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2016년(16.8억 달러) 대비 11.3% 증가한 18.7억 달러로 196개국 중 70위, GCC 국가들 중에서는 2위임.

< GCC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정책성과

Oman Vision 2020 경제개발계획 추진

- 오만 정부는 1976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였으며, Post-Oil 시대를 대비하고 향후 25년 동안의 비전 수립을 위해 1995년 6월 "The Vision for Oman's Economy: Oman 2020"을 발표하였음.
- Oman Vision 2020에서 산업구조 다각화, 국민생활 수준 향상,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 설립 장려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현재 9차 5개년 개발계획(2016~20년)이 진행 중임.
- Oman Vision 2020의 일환인 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목표는 연 평균 3% 성장률 달성, 석유 부문의 GDP 기여도를 26%로 축소, 민관협력(PPP)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투자액은 410억 오만리알(약 1,051억 달러)에 달함.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Omanization) 지속 추진

- 오만 정부는 실업률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민 고용의무화 정책인 Omanization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관광업의 경우 직원의 90% 이상을 오만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산업 부문별로 자국민 채용비율을 관리하고 있음.
- 건설 분야의 경우 전체 피고용인의 30% 내에서 오만 자국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17년 상반기부터 동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표면화되어 추후 자국민 고용 의무화 규정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정치동향

Qaboos 국왕이 48년 간 안정적으로 집권 중이나 고령으로 인한 후계구도 문제 잠재

- 1970년 부왕(父王)을 무혈 쿠데타로 축출하고 즉위한 Qaboos 국왕은 오만의 근·현대화를 주도, 이슬람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온건한 정치·종교 성향을 사회에 정착시켜 오만을 중동의 모범 국가로 만들었으며, 대내외적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
- “아랍의 봄” 여파로 2012년 오만에서도 급여 인상, 고용률 제고,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는 연속적인 시위가 발발하자, Qaboos 왕은 이에 대응하여 정치·경제 개혁을 단행하였음.
- 정치·사회적으로 경찰청장 등 문제 각료를 경질하는 등 내각을 교체하고 검찰 독립을 강화하였으며, 경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5만 개 창출, 실업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짧은 시간 안에 사태를 수습하였음.
- 그러나 현재 78세(1940년생)인 국왕의 건강이 최근 들어 악화되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중앙집권 체제가 악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국왕 유고시 국왕 가족들로 구성된 통치가문위원회가 3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후계자를 정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후계자의 이름을 남긴 국왕의 편지를 개봉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불안정성이 존재함.

사회동향

2012년 시위 이후 안정적 정국 유지

- 2012년 일명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중동 소요사태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Qaboos 국왕의 적절한 대처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인근 중동 국가들에 비해 안정된 정치상황으로 소요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대내외적으로 높이 평가 받는 Qaboos 국왕의 안정적인 통치하에서 특별한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왕 사후 후계자 선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불안 고조 가능성이 우려됨.

국제관계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 기본적으로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랍 국가들 중 가장 친서방 정책을 취하여 미국 및 영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음. 특히 1980년 6월 방위협정 체결을 통해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2006년 1월 FTA를 체결하였음.

국제관계

중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관계 유지

- 오만은 여타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 소수 종파인 이바디파(Ibadism)인 관계로, 과거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카타르 단교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와 국교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타르 단교 사태 이후 오만 국영 항공회사 Oman Air의 무스카트-도하 노선을 증편하는 등 중립적인 외교노선을 이어가고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2017년 5월 23일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 발생을 계기로 2017년 6월 초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
- 현재 내전상태인 인접국 예멘과는 정치적 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11월 케리 미국 당시 국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하여 예멘 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등 오만은 예멘 문제를 비롯한 중동 주요 정치 분쟁에 대해 오만은 중재적 입장을 견지하며, 중동 내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양숙인 이란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오만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선박 항로 프로젝트 등이 추진 중임.

외채상환태도

리스크줄링 경험 없음

- 2018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80.8%, D.S.R.은 15.8%로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나, 리스크 줄링 경험이 없으며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5개월분 이상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이 외에 GDP의 약 24%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운영 중임.

IMF와 세계은행 앞 연체 없음

- OECD에 의하면 2018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오만에 대한 여신은 108억 달러이며, OECD 회원국 ECA 앞 0.4억 달러의 연체가 있으나,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18.01)	3등급(2017.01)
Moody's	Baa3(2018.03)	Baa2(2017.07)
Fitch	BBB-(2018.07)	BBB-(2017.12)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 최근 오만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대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최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Moody's와 Fitch는 여전히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 Fitch와 Moody's는 2017년 12월, 2018년 3월 오만의 신용등급을 BBB-, Baa3로 하향하였으나 여전히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OECD는 오만에 대하여 2004년 10월 이후 계속 2등급을 유지해 오다 2016년 1월 쌍등이 적자 누적, 외환보유고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2018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저유가 추세로 인한 쌍등이 적자 지속을 이유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오만은 저유가 추세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2017년 마이너스 성장(-0.9%) 및 쌍둥이 적자(재정수지/GDP: -12.9%, 경상수지/GDP: -15.2%)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카잔 가스전 신규 가동에 따른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등으로 1.9%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전망이며, 재정·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각각 -2.0% 및 -3.3%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아랍의 봄' 여파로 2012년 시위 사태가 발발하였으나 Qaboos 왕의 적절한 대처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왕의 나이와 후계구도 문제는 향후 잠재적 불안 요소임.
- 서방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도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에도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됨.
- 쌍둥이 적자 보전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84.9%, D.S.R. 18.9%로 높은 편이나, 월평균수입액 5개월분 이상의 외환보유액 및 GDP의 24%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고려할 때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상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종전 평가와 동일한 B2로 부여코자 함.